

“보다 큰 IT시장매력찾아 한국 왔죠”

Foreigner in Venture

인도 자야쿠마 씨

“한국의 IT(정보기술) 업체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우수한 기술을 배워 돌아가고 싶습니다”

멀티미디어 인터넷 솔루션 개발 업체인 아리누리에서 일하고 있는 자야쿠마(27·사진)씨는 멀리 인도에서 온 IT 인력이다. 그가 한국에 머문 기간은 이제 5개월. 지난해 12월 한국땅을 밟은 뒤 3개월 간의 인턴 기간을 거쳐 지금은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자야쿠마씨가 아리누리에서 맡고 있는 분야는 화상회의의 관련 솔루션 개발. 인도 마드라스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뒤 인도 메디컬인포메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며 병원전산화 관련 솔루션을 4년여간 개발한 경력이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자야쿠마씨는 “인도에서 일하는 동안 IBM 싱가포르지사 등에서 근무할 기회가 있었지만 보다 큰 IT 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었다”고 한국에 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가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리엔드파트너즈라는 헤드헌팅업체

덕분. 리엔드파트너즈는 ‘인도판 실리콘밸리’인 방갈로르 현지의 HRS VSNL 등과 같은 헤드헌팅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인도 정보통신 기술자들을 국내로 스카우트하고 있다.

자야쿠마씨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는 월 1백25만원이다. 교통비 식

컴퓨터 전공...아리누리 근무 화상회의의 관련 솔루션 개발

비 집값을 모두 회사측에서 부담하고 있어 월급의 대부분은 저금에 쏟아붓는다. 인도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지 않고 여기서 계좌를 만들어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고.

자야쿠마씨의 절약정신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산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치약 칫솔도 5개월전 인도에서 가지고 온 걸 아직까지 쓰고 있다.

현재 산본에 있는 이문호 아리누리 사장 집에서 같이 온 인도 친구와 함께 머물고 있는 그는 “의사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자야쿠마씨는 일요일엔 이 사장 가족들과 가끔씩 인도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향수를 달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던 지난 겨울 처음으로 눈 구경을 했다는 자야쿠마씨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완벽히 수행해 한국 정보통신기업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겠다”고 아무진 포부를 밝혔다.

한국 IT산업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인프라에선 때때로 인도보다 한 수 아래일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미리 기자